

# 한중교역을 중심으로 본 시멘트 수입동향

곽 복 선 (KOTRA 해외조사팀 중국T/F 반장)

## 1. 한중경제교류 동향

1992년 8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12년간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보면 양국간의 총교역규모는 8.9배, 한국의 중국수출 규모는 13.2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세는 근년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바로 영향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가 든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실례가 급년 상반기 중국정부가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취했던 과잉투자 억제책, 소위 '차이나 쇼크'가 우리에게 주었던 영향과 충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분야일 것이다. 몇가지 수치를 가지고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무려 47.8%나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급기야 미국시장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급년 들어서도 9월말까지 49.4%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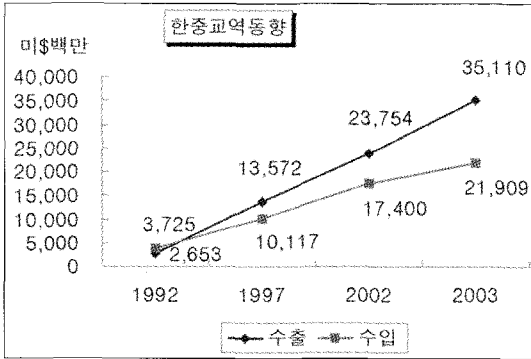
투자진출 분야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급년 10월말 현재 우리기업의 중국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만 2,600건, 163억 달러, 실행기준으

로 1만 700건, 9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당 평균 투자규모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중국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인적, 물적인 상호 교류가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본격화 시점과 수교시기가 겹치면서 우리와 중국간의 관계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양국간 교역 품목을 보면 이러한 면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정제 제품), 합성수지, 철강, 영상기기, 자동차 부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의류, 컴퓨터, 석탄, 반도체, 농수산물, 화공원료, 알루미늄, 석유제품(비정제 제품) 등이다. 품목 구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완제품이나 부품류는 우리가 중국측에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농수산물, 광산물 등 원자재와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제품들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까지는 고부가가치 제품(기계류, 부품, 중간재 등)의 대중수출, 경공산품, 원료성 제품의 수입이라는 충돌성이 적은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크게 문제가 없이 교역규모의 고속확대가

<표-1> 한중교역 동향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기업의 국내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생산지와 방대한 시장을 물색하던 우리 기업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각종 투자혜택과 저임금 구조를 가진 중국이 최적의 투자지로 떠올랐고 너도나도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진출이 주를 이루면서 투자용 설비류, 가공용 원부자재 등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경공산품의 대중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교역과 투자진출이 한중간 경제교류를 빠른 속도로 몰고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해온 것이다.<<표-1>>

## 2. 시멘트 수입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농수산품은 물론 가격이 저렴한 공산품 및 원료들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건자재 분야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축 원자재인 시멘트의 수입이 50% 이상(금액기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시멘트의 비중 또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관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의 국내수요가 2003년 기준 5,6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시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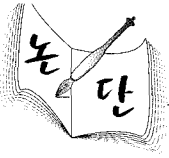
트는 196만톤 정도(총내수대비 3.5% 수준)로 2002년의 소비점유율 2.2%와 비교해 1.3%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모래, 시멘트 등 건자재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및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건축경기의 활황세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크링카 포함) 금년도 9월까지의 수입이 지난해 전체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수입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금년 9월 현재 무려 140%가 증가한 1억 4백만 달러로 지난해의 7,000만 달러를 넘어서었으며, 수량 기준으로도 이미 지난해 수입량을 훨씬 넘어서는 250만톤이 수입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수입증가가 높지 않던 중국산의 수입이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크게 떨어졌었으나 금년들어 70% 가까이 되고 있다. 금액대비로는 무려 209%나 증가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전과 달리 중국의 시멘트 제품의 품질이 나아지고 있는데다 가격면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2>>

문제는 국내의 건축경기가 호조를 보이던 2003년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안정내지 감소 추세와 수도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건자재 수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좀더 싼 자재의 구입수요가 강해지면서,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생산업체는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대외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포틀랜드 시멘트 위주이며, 시멘트크링카나 알루미나 시멘트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포틀랜드 시멘트 수입현황과 그중 중국의 비중을 보면<<표-3>> 이러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1

〈표-2〉 한국의 시멘트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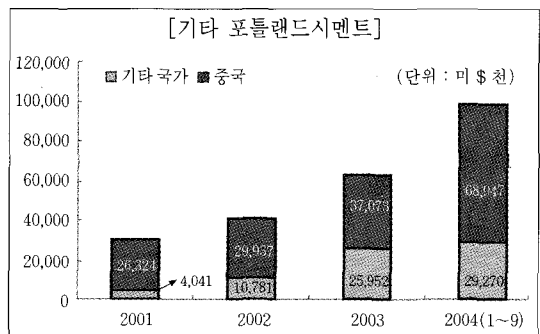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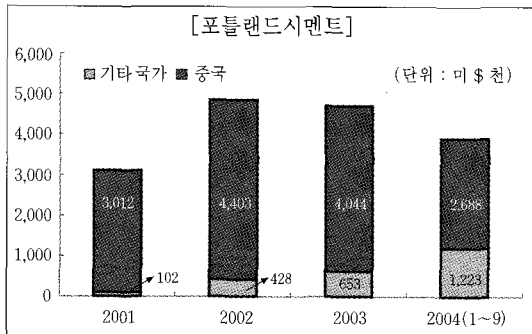
(단위 : 미 \$ 천, 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1~9)		
	금액	수 량	금액	수 량	금액	수 량	증감율	금액	수 량	증감율
시멘트크링카 (252310)	2,977	90,693	166	3,492	2,318	71,397	1,300	566	13,817	-68
(중국)	1,281	36,306	166	3,492	577	11,345	248	196	1,212	-60
백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252321)	3,114	52,110	4,831	77,580	4,697	75,962	-3	3,891	59,329	15
(중국)	3,012	51,305	4,403	73,385	4,044	66,963	-8	2,668	40,833	-4
기타 포틀랜드시멘트 (252329)	30,365	922,239	40,718	1,232,983	63,025	1,809,977	55	98,217	2,495,435	171
(중국)	26,324	790,509	29,937	879,398	37,073	1,004,160	24	68,947	1,677,888	253
알루미나 시멘트 (252330)	2,434	4,725	2,340	5,289	2,472	5,277	6	1,651	3,493	-3
(중국)	148	1,180	412	1,727	602	2,073	46	486	1,231	12
기타 수경성시멘트 (252390)	295	758	499	2,268	536	2,944	7	270	1,209	-39
(중국)	68	377	76	452	209	1,567	174	101	857	-43
총 계	39,185	1,070,525	48,554	1,321,612	73,048	1,965,557	50	104,595	2,573,283	140
중 국	30,833	879,677	34,994	958,454	42,505	1,086,108	21	72,398	1,722,021	209
총수입 중 중국산 수입비중	79	82	72	73	58	55		69	67	

자료 : KOTIS(세관통계)

주 : 증감율은 금액기준임.

〈표-3〉 시멘트 수입현황



### 3. 중국의 시멘트 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시멘트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국의 관련 산업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생산량, 투자

2003년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8.63억톤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다. 일년 사이에 무려 1.38

〈표-4〉 시멘트 생산기업 현황

구 분	생산기업수(개사)		총생산액 중 비중(%)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국유, 집체기업	2,879	1,881	47.7	28.3
사영기업	634	1,400	9.5	21.3
유한책임제기업	630	989	16.2	24.6
총 계	4,143	4,270		

자료 : 중국신문보도 정리

주 : 관련 통계에는 라파즈 같은 외자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억톤이 늘어난 것이다. 시멘트 분야 고정자산투자액은 303억 위안(약 37억달러)으로 2002년 대비 90%의 증가를 보였다.

### 나. 생산기업

시멘트 생산기업은 중국의 산둥(山東), 광둥(廣東), 강소(江蘇), 절강(浙江), 하북(河北)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시멘트 생산기업의 형태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생산기업 및 생산비중이 증가한 반면 국유와 집체 분야는 기업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즉, 중국의 시멘트 생산 분야는 유한책임 및 사영기업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4〉)

### 다. 판매량

2003년 중국의 시멘트 판매량은 85,726 만톤에 달했으며, 연말 재고량이 3,576 만톤이었다. 비교적 많은 재고량이지만 생산대비 판매율이 99.2%에 달해 재고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중국 시멘트 수입급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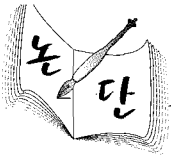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금년들어 중국으로부터 시멘트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멘트가 부

족하여 수입이 급증한다면 자연스럽겠지만, 사정은 건설경기의 하강세가 지속되고 시멘트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수입급증, 그것도 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건설경기가 가까운 시일내 활황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급증의 원인은 크게 보면 한국내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관련 건축기업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건자재를 찾게 되면서, 품질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시멘트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중국산 모래나 북한산 모래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내기업들이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찾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생산, 판매 현황에서 보듯이 재고량만 3,600만톤(우리나라 내수량의 2/3 해당)인 중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며, 금년 4월부터 부동산 분야와 시멘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면서 대외로 더 많은 눈을 돌리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1)</sup>

1)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금년 4월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펴면서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제품을 대상으로 중복투자제한, 은행대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량 및 판매량이 방대한 상황이다. 동 조치의 여파로 생산능력을 늘리는 신규 투자가 다소 억제된 상황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시멘트 수입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긴축기조 정책과 최근의 금리인상, 그리고 대내외적 압력에 따른 위안화 절상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정체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멘트 등 건자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의 대외수출 여력은 커질 것이며 중국 시멘트 내수 감소에 따른 내수가격 하락으로 동부연안 대형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명년에도 정부에서 부동산 분야의 제한적 정책을 지속하기는 하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체되는 계획의 시행, 기업도시의 추진, 새로운 사회인프라 구축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수시장의 상황은 다소 호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멘트 생산기법은 건식법으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외자기업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물량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시멘트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기술력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건축환경(건자재의 환경보호적 제품화, 기능화, 건강화 추세)에 적응하는 다양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시사 용어 해설

▶ 교토의정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데 붙여진 이름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의 5.2%까지 감축토록 의무화했다. 교토의정서에는 1998년 8월 말 현재 49개국이 서명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개도국에 대해서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1999년 3월까지 교토의정서 서명을 늦출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서명하기로 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Annex I]은 OECD 회원국 27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등 38개국이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인 [Non Annex]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